

**The Gospel of Mark**

Sermon 59 – Sermon Notes

Title: “The signs that signal the end”

Scripture: Mark 13:1-13

Date preached: October 22nd 2023

**Scripture: Mark 13:1-13**

**1** Then as He went out of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Teacher, see what manner of stones and what buildings *are here!*”

**2**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Do you see these great buildings? Not *one* stone shall be left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3** Now as He sat on the Mount of Olives opposite the temple, Peter, James, John, and Andrew asked Him privately, **4**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when all these things will be fulfilled?”

**5** And Jesus, answering them, began to say: “Take heed that no one deceives you. **6**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He*,’ and will deceive many. **7** But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do not be troubled; for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not yet. **8**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will be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nd there will be famines and troubles. These *are* the beginnings of sorrows.

**9** “But watch out for yourselves, for they will deliver you up to councils, and you will be beaten in the synagogues. You will be brought before rulers and kings for My sake, for a testimony to them. **10**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the nations. **11** But when they arrest *you* and deliver you up, do not worry beforehand, or premeditate what you will speak. But whatever is given you in that hour, speak that;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the Holy Spirit. **12** Now brother will betray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and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parents and cause them to be put to death. **13**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1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다. 2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4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5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7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8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9 “주의하여라. 너희는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때 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1 너희는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13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We concluded chapter number 12. We find ourselves on the Tuesday of passion week and once again within the temple complex. On this occasion we find Jesus and the disciples in the court of the women. This was where the temple treasury was located. It comprised 13 trumpet shaped chests into which people dropped their voluntary donations. As Jesus watched he witnessed many rich people come and deposit large sums into the offering boxes. No doubt this was done in a rather showy way as they wanted to be seen making their offering. Then along came a poor widow. She approached in a humble almost embarrassed way. This was because in her hand she clutched just two mites (Greek lepton). The lepton was the smallest and lowest value coin in circulation at that time. Compared to what others had offered it was a tiny, insignificant sum of money.

Turning to the disciples the Lord Jesus told them that she had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who had donated. The disciples were no doubt gobsmacked by Jesus' words. How can two mites be compared to the many denarius others offered. Jesus answer is illuminating. The rich gave out of their excess. They could afford what they gave and giving it came at no real personal cost. The widow by contrast gave out of her poverty. She gave all she had, and giving it would come at great personal cost. But it is this kind of truly sacrificial giving that God desires. He wants us to be grateful for what He has given us and joyfully give back to Him. This is why this poor widow will always be remembered for her “small” offering, whilst the rich who gave a great deal have all long been forgotten.

Today we begin chapter number 13.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12 장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고난주간 화요일이고 성전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의 뜰에 계셨습니다. 이곳은 성전 헌금함이 있던 곳이었습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넣는 트럼펫 모양의 상자 13 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소 눈에 띄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 때 가난한 과부가 왔습다. 그녀는 겸손하고 거의 부끄러운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렘돈 두 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렘돈은 당시 유통되는 동전 중 가장 작고 가치가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금액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두 렘돈을 다른 사람들이 바친 많은 데나리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깨달음을 줍니다. 부자들은 남는 것을 기부하였다. 그들은 기부할 여유가 충분히 있고 그 돈이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다. 반면에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헌금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개인적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참된 희생적인 기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 “작은” 금액을 헌금했지만 항상 기억될 것이고, 많은 금액을 헌금한 부자는 금방 잊혀질 것입니다.

오늘은 13 장을 시작합니다.

## **Introduction**

We arrive today at chapter 13. Mark devotes this entire chapter to Jesus' teaching on what will be the fate of Jerusalem, and what will be the signs that signal His second coming. Today we refer to this as the "Olivet Discourse." This rather fancy title just indicates that it was a discussion or talk that took place on the Mount of Olives. It appears in all three synoptic gospels, and Matthew provides the fullest account. It is not mentioned in John's gospel. There is a very good reason for this. John's gospel was the last to be written, probably between 80 and 95 AD.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took place in 70 AD. So John obviously did not need to include this prediction which had already come to pass.

The Olivet discourse is a very challenging and difficult section of the New Testament. Part of the problem comes from the very "Jewish atmosphere" of the discourse.

It i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that what we are reading stemmed from questions asked of a Jewish rabbi by four Jewish men, about the future of the Jewish temple. Remembering this helps a little in helping us distinguish what is intended for His original Jewish hearers and what is meant for those living at the end times (possibly us). It is obvious I hope that when the disciples asked Jesus about what would happen they meant in the near future. They were concerned with how this might impact them.

This was how Jesus understood and then answered their questions.

Or let me put it another way, as we read the Olivet discourse we should be thinking and trying to discern what is "near" and what is "far" future. When the Lord Jesus spoke of the events surrounding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He spoke about the **near future**. Events that would take place around 37 years later. To His Jewish hearers such a climatic event would indicate the end of the world. But this is not the case, it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end. It would be hard for His Jewish listeners to see beyond this catastrophe but it was essential that they did. So Jesus goes on to talk about the **far future**. Events that would occur at a time far removed from His original hearers. The disciples and those living in 70 AD would see Jesus words fulfilled. We, hopefully, or those that follow us will also see His words fulfilled as our Lord and Saviour makes His dramatic second coming. With that being said let us begin our study.

오늘부터 13 장을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 장 전체를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할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감람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다소 화려한 제목은 그것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세 공관복음 모두에 나타나며, 마태복음이 가장 완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서기 80 년에서 95 년 사이에 기록된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 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미 실현된 이 예언을 포함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람산 설교는 신약성경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담론이 아주 "유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대인 성전의 미래에 관해 네 명의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랍비에게 던진 질문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마도 우리)을 위한 의미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을 때 그들이 의미한 바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셨고 거기에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감람산 설교를 읽을 때 무엇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무엇

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지 분별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미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약 37 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분의 유대인 청중들에게 그 극적인 사건은 세상의 종말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유대인 청중들이 이 재앙 너머를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먼 미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제자들과 서기 70 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 사람들도 우리의 주님 구세주께서 드라마틱하게 재림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Then as He went out of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Teacher, see what manner of stones and what buildings are here!”**

Following the incident with the widow and her two mites the Lord Jesus leaves the temple. Probably they exited through the east gate (Golden gate) and began their ascent of the Mount of Olives. As they climbed they would have had the most amazing view of the temple complex.

It was, as I have said before one of the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Even the Romans recognized the Jewish temple for its stunning beauty. The walls were constructed of huge stones (some forty to sixty feet long) and weighing up to 72 tonnes. The top was adorned by white marble with gold plates on the facade. It literally sparkled in the sun. The disciples awed by the spectacle are moved to point it out to Jesus, “Look Rabbi, what an amazing building this is!” Let us see how the Lord Jesus responds.

**1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다.**

과부와 그녀의 두 렵돈과 관련된 일이 있은 후 주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아마도 동쪽 문(Golden gate)을 통해 나와 감람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갔을 때 그들은 성전 단지의 대단히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인들도 유대인 성전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인정했습니다. 성벽은 거대한 돌(약 40~60 피트 길이)로 지어졌으며 무게는 최대 72 톤에 이릅니다. 상단은 정면에 금판이 달린 흰색 대리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경외심을 느낀 제자들은 “랍비님, 이 건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Do you see these great buildings? Not one stone shall be left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It's hard for us today to imagine just how shocking Jesus prediction regarding the destruction of all they surveyed would have been to the disciples. As Jews the temple was the pride and centre-piece of the nation. They imagined that it would stand glorious and unblemished forever. In fact, it would not be wrong to say that for many Jews the temple itself had become an idol. The temple building itself had replaced God in their thoughts and affections. So to imagine a world without the temple was to imagine the end of the world. What kind of existence could they have without the temple?

Although in the Old Testament similar warnings had had been given (Jer 7:14; 26:6; Mic 3:12) what Jesus says will happen here seems preposterous. Not simply that the temple will suffer some damage or partial destruction. But that it will dismantled massive stone by massive stone. This is exactly what took place between April 11 and September 7 of the year 70 AD. The Roman general Titus and his forces utterly destroyed Jerusalem and the temple complex. They even broke apart

many of the stones to get at the gold embedded in them. Today only one part of the wall is preserved. You can visit just a small section of the Western or “Wailing wall.”

How will the disciples react to this shocking revelation?

**2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 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성전은 그 나라의 자랑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영원히 영광스럽고 흠집 없이 서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그들의 생각과 애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는 세상은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전이 없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을까?

구약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있었지만(렘 7:14; 26:6; 미 3:12), 예수께서 여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예언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성전이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부분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돌들이 하나 하나 모두 해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 70년 4월 11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Titus)와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성전 단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안에 박혀 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 많은 돌들을 깨부수었습니다. 현재는 성벽의 한 부분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서쪽 벽 또는 "통곡의 벽"이라는 작은 부분만 현재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충격적인 계시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 Now as He sat on the Mount of Olives opposite the temple, Peter, James, John, and Andrew asked Him privately, 4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when all these things will be fulfilled?”**

The Lord Jesus and the disciples find a suitable place on the Mount of Olives opposite the temple and sit down. It is at this point that four of the twelve come to Jesus privately to ask Him to give them more information. They rightly sensed that something this catastrophic had to have significance, so they wanted more precise details.

The four are the inner core group of Peter, James and John. They are joined here by Peter's brother Andrew. I'm sure that you remember that they were the first four disciples called by Jesus. They have two important questions to ask Jesus regarding what He has just said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The two questions are as follows.

### **1 When will these things take place?**

One's success in life often depends on being properly prepared. Part of being prepared includes knowing an approximate date for when something will take place. Imagine for example if you are asked by your boss to write, and present a report. You need to know the reports focus or interest, and more importantly the time frame in which you have to complete it. Is it expected in a week, a month or in six months time? So the disciples here are seeking an approximate time for when this destruction will take place. Their correct assumption was that these events will be coming to fruition quite soon. Knowing this will allow them to be properly prepared. Let's look at their second question.

### **2 What signs should we look out for to tell us that they about to be completed.**

The second question is most pertinent. They no doubt remembered the historic events surrounding

the destruction of the first temple (586 BC by the Babylonians). The first temple was destroyed in the context of national judgment and exile. So the disciples probably wonder if the temple is again to be destroyed what will become of Israel and the Jews?

Sign seeking was a particular interest or concern of the Jews. They understood that significant events in history were typically accompanied by signs. This will also be the case here. But, as we will shortly see the Lord Jesus first warns them about the false signs that may mislead many. Let us read on.

**3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4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열두 제자 중 네 명이 개인적으로 예수께 와서 더 많은 것을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가지는 중요성을 올바르게 감지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내부 핵심 그룹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들과 합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네 제자였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파괴에 관해 예수께서 방금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종종 적절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의 일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대략적인 날짜를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상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라고 요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고서의 초점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한 달 또는 6 개월, 언제 끝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제자들도 이 멸망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대략적인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 **2 그러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첫 번째 성전의 파괴(바빌로니아인에 의해 기원전 586 년에 일어남)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국가적 심판과 유배를 가는 상황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이 다시 파괴된다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중요한 사건에는 일반적으로 징조가 동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주 예수께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거짓 표적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 And Jesus, answering them, began to say: “Take heed that no one deceives you. 6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He,’ and will deceive many.**

The first warning that the Lord Jesus gives them is to take heed so that they are not deceived or taken in. It would be easy for the disciples to ascribe chaotic or negative events that were taking place to this terrible event prophesied by Jesus. We see a similar mindset at play today. Is an earthquake in Turkey a sign that the Lord Jesus is soon to return? Well, maybe but it could also just be an earthquake in Turkey and nothing more.

One of the false signs that the end is nigh is the presence of false or fake Messiahs (Christ's). Such men would arise and through lies deceive many. In the first century there were many false, self-proclaimed messiahs. Theudas and Judas the Galilean are mentioned in the book of Acts (5:36–37). They were far from the only ones in the first century. Other notable men claiming to be the Messiah, or come from the Messiah include Dositheos the Samaritan, Simon of Peraea and Athronges.

Some of these claimed they were actually the Messiah, whilst others claimed to come “**in the name**” meaning that they came representing the Christ.

They claimed that people should listen and follow them because they came with the authority of the Messiah or with a divine message.

How deceptive false Messiahs were and sadly still continue to be. Many even living today are fooled and taken in by the lies and deceptions of false teachers. The simple test for anyone claiming to come from God, or bring a message from God is to take what they say and compare it to scripture. Any deviation from the bible or any minimisation of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is a red flag. Flee from such people. Let us read on.

## 5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 예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벌어질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사건들을 예수께서 예언하신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고방식이 작동합니다. 터키에서 발생한 지진은 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징조일까요? 글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 이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거짓 신호 중 하나는 가짜 메시아(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1 세기에는 가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5:36-37). 1 세기에는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메시아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다른 눈에 띄는 인물로는 사마리아인 도시테오스(Dositheos), 페레아 시몬(Simon of Peraea), 아트론게스(Athronges)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실제로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왔다는 의미로 “**이름으로 in the name**”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권위 또는 신성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은 대단히 기만적이었고, 슬프게도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간단한 방법은 그들의 말을 성경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부터 도망치세요.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7 But when you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do not be troubled; for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not yet. 8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will be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nd there will be famines and troubles. These *are* the beginnings of sorrows.**

The next thing the Lord Jesus says are not to be taken as a sign of the end are wars and rumours of wars. This should probably not surprise us. One sad and terrible reality of life is that human beings are constantly fighting and killing one another. In 2003 there was an article published in the New York Times. The article made the claim that in the previous 3,400 years of human history only 268 had been years of total peace. So just 8% of that vast chunk of time was spent in peace and 92% was taken up by wars and battles of one kind or another. So the prospect of war, or war itself is a very vague indicator of the end times.

Jesus then goes on to talk about natural disasters. Israel, Syria, Greece, and Italy all lie in an active earthquake zone. This meant that earthquakes of varying magnitudes are a common occurrence in this region. During the New Testament period there were a number of major earthquakes. Such natural cataclysms were often associated with apocalyptic events, but Jesus says that they do not signify the arrival of the end.

The Lord also mentions famines. In the ancient world famines were a constant threat to human life. Life was precarious. Anything that disrupted the production of food; war, earthquakes or other natural disasters could result in disastrous famines. But Jesus warns, these things are not the end itself but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Jesus uses this expression here to convey the idea of labour pains. When a woman is about to give birth she experiences labour pains (birth pains). The baby is on the way, it's "coming soon," but sometimes this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s. The woman may have to endure a lengthy period of labour. So the Lord Jesus uses this term to explain how these things happening (war, natural disasters) are signs that something significant is about to take place, but are not the thing itself. So the disciples need to be aware that chaotic events will precede the temple's destruction, but are not to assume that every instance of a chaotic event signals the end time.

One question often asked is whether we are seeing an increase in natural disasters today. Should we be concerned? Well according to some we are seeing an increase. Data captured between 1900 and 2019 by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reveal an increase from 39 incidents of natural in 1960 to 396 in 2019. What are we to make of this? I like what Sinclair Ferguson writes in his commentary on Mark.

*"We must always live in readiness and expectation. But we must not allow ourselves to be led into panic by a wrong diagnosis of the contractions of the universe."*

(Ferguson – Let's Study Mark p.213)

I will speak more on this later. Let us move on.

**7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8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는 난리와 전쟁 소문을 종말의 징조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슬프고 끔찍한 삶의 현실 중 하나는 인간이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2003년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전의 3,400년의 인류 역사 동안 완전한 평화를 누렸던 시기는 단지 268년 뿐이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오랜 기간 중 단지 8%만이 평화가 유지되었고 92%는 이런저런 종류의 전쟁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전망, 즉 전쟁 자체는 종말과 관련하여 분명한 지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연재해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스, 이탈리아는 모두 지진이 활발한 지역에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지진이 흔히 발생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자연적 대격변은 종종 종말적인 사건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종말의 도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기근을 언급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근은 인간의 생명에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삶은 위태로웠습니다. 식량 생산을 방해하는 모든 것, 즉 전쟁, 지진 기타 자연 재해로 인해 심각한 기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이 종말이 아니라 **슬픔의 시작**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임산부의 산통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산통)을 겪습니다. 아기가 곧 나오려고 분만이 시작되었어도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여성은 오랜 산통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전쟁이나 자연 재해 등이 중요한 사건이 곧 일어날 징조이지 그 사건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 사건들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오늘날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가 1900 년부터 2019 년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1960 년 39 건에서 2019 년 396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Sinclair Ferguson 이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쓴 다음 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와 기대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 수축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 (퍼거슨 – Let’s Study Mark p.213)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9 “But watch out for yourselves, for they will deliver you up to councils, and you will be beaten in the synagogues. You will be brought before rulers and kings for My sake, for a testimony to them. 10 And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the nations.**

The next warning is of a more personal nature. The disciple's, who of course were greatly loved by the Lord Jesus should watch out for themselves. They are going to be living in perilous times. Therefore the disciples must steel themselves in anticipation This is because the followers of Christ will face persecution for their faith.

Once again this persecution was not the sign of the end, but simply should be expected. They will be delivered or handed over to various authorities. This persecution will come from four specific areas.

1 From councils

2 Synagogues

3 Rulers / Governors

4 Kings

Councils is a reference to local councils of elders and leaders who oversaw village life in both Jewish and Gentile areas. Synagogues also functioned in Israel as law courts. So Christians would be called to defend their beliefs in official law courts. Appearing before “governors and kings” is a reference to Roman persecution. As the overseers of this region they would try and determine the

fate of many followers of Christ. Interestingly the Lord Jesus (in His passion) and Paul (Acts 22-28) experienced all four.

Naturally this form of persecution is not desirable or sought after. But it does serve an important purpose. When Christians are dragged before these various authorities what will they do? They will serve as witnesses for the amazing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These venues will serve as forums where the gospel message will be proclaimed. People who in ordinary circumstances would be unwilling to hear Christ preached will have no choice but to hear Christ preached. Jesus also adds here an important caveat designed to encourage those facing tough times. It is that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How you might ask is this an encouragement? Well simply because persecution cannot stop the gospel from spreading. The light of the good news message will never be extinguished. So whilst an individual Christian may suffer and even die for the cause the light of the gospel message will never go out. It is God's plan, therefore it cannot be thwarted for all the world to hear of His Son. This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That means it is our mission. Let us read on.

**9 “주의하여라. 너희는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다음 경고는 좀 더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제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험한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박해는 종말의 징조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예상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권위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 박해는 네 가지 특정 영역에서 올 것입니다.

1 공회

2 회당

3 권력자 / 정부 지도자

4 왕들

공회는 유대인 지역이나 이방인 지역의 마을 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장로와 지도자들로 구성된 지역 평의회를 가리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에서 법정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식 법정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도록 소환될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로마의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감독자로서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 추종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주 예수님(그분의 고난)과 바울(사도행전 22-28 장)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형태의 박해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권위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과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곳들은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광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곳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어려움에 직면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요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격려일까요? 그것은 박해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빛

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복음의 불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온 세상이 그분의 아들에 관해 듣는 것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 But when they arrest *you* and deliver you up, do not worry beforehand, or premeditate what you will speak. But whatever is given you in that hour, speak that;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the Holy Spirit.**

A big fear that many Christians have is the fear of not properly being able to explain the hope they have within them. It is a failing of both the church in general, and of individuals that they cannot adequately explain what they believe and why. I think we should always have a good answer for people who question us. I don't think we serve the Kingdom well if our defence of the faith rests on us simply "feeling it to be right." Therefore to have a good answer may require a little study and practice. So we should not misapply what is being said here and assume it means we should remain ignorant or unable to give good answers.

In order to be able to answer people well it requires that we read and study God's word. The Holy Spirit will I believe help us in such situations, but we too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our own learning and understanding. We are not always to be craving milk, we need to mature and move onto meat. However that is not what is being addressed here.

Jesus is speaking here to the disciples about trials or legal proceedings. They will face arrest and inquisition. At such times they may understandably worry about what to say. They may fret about what the proper defence should be. We should not forget that most of the disciples were simple working men. They would be being tried by highly educated and sophisticated lawyers.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y would have concerns. The Lord Jesus tells them not to worry. At such times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them to guide them in what to say. What a wonderful promise that is. This would have been a great comfort to these men knowing that they would not face such difficult times alone. Let us continue.

**11 너희는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두려움은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교회 전체와 개인 모두의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옳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단지 "옳다고 느끼는 것"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대답을 하려면 공부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잘못 적용하여 무지한 상태로 또는 옳은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또한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서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재판이나 법적 절차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심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변론해야 할지 염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단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교육받고 수준 높은 변호사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할 것은 당연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혼자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합시다.

**12 Now brother will betray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and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parents and cause them to be put to death. 13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We think of the family as being a safe and supportive space. We assume that those closest to us will share our beliefs or convictions. Or that even if they disagree with us the bond of love will remain strong, and they will continue to love and respect us even if they don't accept our position.

In the times that Jesus talks about this will not be the case. Because of their love and devotion to Him Christian persecution will not be limited to the outside world. It will not only be neighbours, councils or strangers attacking. It will also come from the inside. From people who should love us. The disciples will face hatred and animosity from close family members. We should note that there are no examples of this in the pages of the New Testament, but such divisions sadly have taken place often throughout history.

It may be difficult for us to comprehend this kind of horrific betrayal. How could someone betray a family member knowing that they are to be taken away and killed? It seems inconceivable that someone would inform the authorities when their family members only “crime” is that they love and follow Christ?

I find it interesting today that in the western world almost every religion or cultic practice is accepted, if not embraced except Christianity. People are free to do and say whatever they like except when they bring up the name Jesus Christ. Then the hatred and anger begin. Isn't that interesting. The name of the one who brings life and salvation is suppressed and hated. But the names of demons who bring enslavement and death are exalted. So persecution is alive and well today.

You may have it experienced it in some form in your own family. These things Jesus tells the disciples will be a sign that the end is near. When such things occur it may provoke great fear and a desire to give up, or fall away. The Lord Jesus cautions against doing this. He tells the disciples that if they endure this suffering to the end are assured that they will be delivered (saved). Which end is in view here is much debated. The end of the persecution, the end of life or the end of the age. Which ever way we see it when our faith rests in Christ we can rest secure knowing we are saved.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13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안전하고 항상 우리를 지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나 신념을 공유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사랑의 유대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받을 박해는 외부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 의회 또는 낯선 사람만이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는 또한 내부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를 사

랑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증오와 적대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가 없지만, 슬프게도 역사 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끔찍한 배신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붙잡혀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 어떻게 가족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범죄”인 가족을 누군가가 당국에 고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교나 이교 행위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행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증오와 분노가 시작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의 이름이 억압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과 죽음을 가져오는 악마들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오늘날에도 살아 있고 건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큰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거나 변절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여기에서 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박해의 끝, 생명의 끝, 시대의 끝. 그 끝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one comment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1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the future**

Let me make a confession. I'm fascinated by end time predictions and prophecy. I follow a number of online ministries that focus a great deal of their attention on examining current world events and hypothesising how these may factor into the end times. There are many things happening that may point to the prediction of biblical prophecy. A global pandemic, worldwide economic collapse, the rise of AI and other forms of technology, particular political alliances around the world and the push for a global currency and a one world government. These ministries are careful not to ever set precise dates. And when it comes to their beliefs they are orthodox and sound. They preach Christ and want people to turn to Him in this time of crisis and chaos. They are however of the opinion that the time is short and Christ's return may be soon. They may or may not be right. The signs may indeed be pointing to His imminent return. I certainly hope so.

Today the internet provides a forum for all those who see political events or natural disasters as being signs of the end. Such people and groups are not new. There have always been prophets of doom. In the past people spoke of visions in which they witnessed the end of the world. Others wrote books or appeared on the television or radio.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believe that they were the generation that would see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Many gullible people have followed, sometimes with disastrous results these purveyors of catastrophe.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the future. There are two dangerous positions we might take. The first is to think that since the Lord could return tomorrow (He could) that we should just sit on a mountain top and wait. Why bother doing anything when it will all end soon.

This is not a good stance to take. Whilst we are waiting we need to go on living. Adopting such a position means we might neglect the important duties to which we are called. The duty to care for ourselves and our neighbours. It's basically a selfish approach that dismisses the importance of making plans and more importantly sharing the gospel.

The second equally dangerous view is to not think about the future at all. To just assume that things will always go on as they have. I wonder when I meet Christians who have this view whether they are actually a little too comfortable living here. I also wonder whether they have got their heads buried in the sand. It's clear to me at least that we are on a downward trajectory. The world is not getting better, the opposite is the case. Assuming things will just go on forever is also being dismissive of the wonderful future we have to look forward to. As followers of Christ we ought to be eager and excited for His return. Adopting such a view is also selfish and neglectful. Why bother sharing the gospel today when we could do it next week or next month.

So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the future is in a state of readiness and anticipation. We must be aware that Christ could return at any moment, but equally use the time we have been given sensibly. We are to continue living well and making plans for the future. However we are never to forget that the next big event to occur is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Therefore we must be using the time we have to ensure that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strong and also in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We should think that this person to whom we are talking may only have this one chance to hear the gospel. When we think like this it better helps us put things in perspective. One eye on the here and now and one looking up for the return of our Saviour. Come Lord Jesus come.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종말에 대한 예측과 예언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이것이 종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가설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여러 온라인 사역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예언으로 예측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 AI 및 기타 다른 형태의 기술의 부상, 전 세계의 특정 정치적 동맹, 글로벌 통화 및 단일 세계 정부에 대한 추진 등. 이들 사역들은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정통적이고 건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이 그분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안남았고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징조는 실제로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치적 사건이나 자연 재해를 종말의 징조로 보는 사람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사람과 집단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목격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썼거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세대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속기 쉬운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고, 때로는 재앙적인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가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위험한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오실테니(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산꼭대기에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끝날텐데 굳이 뭘 해? 이는 좋은 입장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돌볼 의무입니다. 이는 계획을 세우고 더 중요하게는 복음을 전할 중요한 임무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견해는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항상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곳에서 살

고있는 삶이 조금은 너무 편안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들이 머리를 모래 속에 파 묻은 채 살고있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하향 궤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해야 할 놀라운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열망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이 두번째 견해를 택하는 것 역시 이기적이고 태만한 것입니다. 다음 주나 다음 달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준비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도 똑같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바르게 살면서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큰 사건은 주 예수님의 재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번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한 눈은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다른 눈은 우리 구주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Come Lord Jesus, come.**

